

한국 디자인사의 물질문화적 탐구:

시대별 흐름과 문화적 의미

Exploring the Material Culture of Design History in Korea: Cultural Flow and Its Meanings

편집자 주

이 기획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이 2018년 3월 전국 대학 최초로 학부, 대학원에 개설한 ‘한국디자인사’ 교과목을 필수 교과로 운영하며 얻은 결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 일환으로 이번 기획에서는 한국디자인사의 흐름을 물질문화적 관점에서 시대별로 탐구하며, 디자인이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한 학부 3학년 학생들의 한 학기 연구 결과 총 12건을 소개한다. 한국디자인은 전통과 현대, 그리고 외래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그 특이성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 복잡한 시대성 속에서 한국디자인의 고유성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사물을 통해 살펴 보고, 그 속에 담긴 문화사적 의미를 해석했다.

예를 들어, 근대 벽지 디자인의 기원과 발전을 탐구하여, 전통 혼례품과 딱지본 표지 디자인에서 발견되는 미감을 조명했다. 일제강점기의 모던 걸 복식 디자인 변화와 여학교 교지를 통해서도 그 특징을 분석했다. 한국 전쟁기의 영웅소설 표지 이미지가 어떤 사회적 맥락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 전통 수젓집 디자인과 한글 인장의 시각 정체성 확립 과정을 통해서도 전통과 근대의 접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했다. 현대로 접어들어서는 K-푸드와 전통 색채, 생활문화 속 의자 디자인 등을 통해 우리의

※ 이 특집 기획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이 2018년 3월 전국 대학 최초로 마련한 <한국디자인사> 필수교과목을 운영해 온 결과를 토대로 그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상에 녹아든 디자인과 그 의미를 탐구했다. 뽕튀기를 단순히 간식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일상 문화를 담은 소재로 다뤘으며, 의상, 건축, 공예품 등에 널리 사용된 전통 오방색이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세계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에 활동한 문학비평가 이태준의 ‘물질로서의 책’에 대한 개념에 근거하여 인간과 교감하는 사물로서 책이 지닌 시각적 물질성을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개념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교육 자료의 시각적 특징을 들여다봄으로써 디자인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생활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한국인의 일상을 문화사적 맥락으로 조명했다. 다양한 사물을 통해 들여다본 한국디자인의 변천과 그에 담긴 생활사적, 문화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는 각 시대별 사물의 디자인 특성과 그 변화를 통해 한국 디자인의 고유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기획을 계기로 한국디자인사 교과 운영을 통해 우리 디자인의 다양한 사건, 사물, 사람을 기록하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지도교수: 고선정, 김소연, 박지나, 오주은

기획: 안병학

Editor's Note

The feature is planned to spread diverse outcomes from the 'Korean Design History' course in the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at Hongik University. The course is set to teach and study Korean Design History in March 2018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as a mandatory course at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For this time, we introduce 12 selected research results that dealt with the impact of design on society and culture, done by 3rd-year undergraduate students from this semester. Korean design has a driving force embodied as our uniqueness in undertaking the various encounters between tradition, modernity, and foreign culture. In this complexity, through observing objects and interpreting the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 contained therein, we looked at how the originality of Korean design came up and what made the changes.

For instance, aesthetics in traditional wedding products and the cover designs of *Ttakjibon* were highlighted by exploring the origins and changes of modern wallpaper design. We analyzed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modern girl clothing desig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girls' school magazines. We also looked at what social context the cover images of heroic novels from the period of the Korean War contain. Through the traditional Korean cutlery design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visual identity of the Korean seal, we discovered important clues needed to understand the intersec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Entering modern times, we explored design and its meaning incorporated into our everyday life through the traditional colors in K-food and chair design in daily culture. For example, we treated 'Ppongtwigi' cakes as a material that embodies tradition and daily culture beyond just a snack. We also looked at how the traditional five cardinal colors, widely used in clothing, architecture, and crafts, reflect the view of people in Korea who value harmony and balance. Lastly, we examined the impact of public education by looking into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est materials used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this manner, the historical context impregnated with Korean culture was illuminated by looking at the objects we can see every day. The attemp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changes in Korean design through various objects and our life history and cultural-historical meanings created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the uniqueness of Korean design through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objects in each era and their changes. Taking this initiative as an opportunity, we plan to continue this serial feature by archiving various events, objects, and people related to our design via our Korean Design History Classes.

Supervisor: Ko Sunjung, Kim Soyoun, Park Jina, Oh Jueun

Planner: Ahn Byunghak